

전남 간척지 1만681ha 내년부터 벼농사 못짓는다

정부, 전국 13개 임대 간척지 내 수도작 신규·연장 계약 중단 발표 전남, 전체 33.6% 차지...축구장 6200개 규모 벼 재배면적 사라져 스마트팜 등으로 대체...농민들 "내년 종자도 준비 했는데..." 반발

정부가 전국 최대 규모인 전남도내 임대 간척지 축구장 6200여개 규모의 일반벼 재배 면적을 가루 쌀, 조식료 등 타작물 재배지와 스마트팜, 태양광 발전사업지로 대체하기로 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임대 간척지에서 벼농사에 종사해 온 전남 농민들은 이미 내년 종자까지 구입한 상황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조차 없이 사실상 '농사 금지'를 발표한 정부의 급격한 정책 추진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25일 '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전국 13개 임대 간척지 내 수도작에 대한 신규 및 연장계약을 금지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임대 간척지 내 일반벼 재배면적을 0ha로 점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수도작은 논에 물을 대어 벼농사를 짓는 것으로, 일반벼 농사를 뜻한다.

전남지역 내 임대 간척지는 고흥, 장흥 삼산, 진도 군내, 진도 보전, 영산강II, 영산강III-1, 영산강III-2 등 7곳 총 1만681ha로, 전국 13개 임대 간척지 면적(3만 1786ha)의 33.6%에 이른다.

전남 소재 간척지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 계약을 맺은 곳은 총 106개 법인이며, 7588명의 지

역 농민들이 간척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중 전남 간척지 내 수도작 면적은 축구장 6211개에 달하는 4435ha로, 정부 종합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벼 농사 면적은 없어진다.

전남 지역별 간척지 내 수도작 면적은 올해 기준 영산강III-2가 1930ha로 가장 넓고, 영산강III-1(1307ha), 고흥(521ha), 군내(261ha), 영산강II(174ha), 삼산(123ha), 보전(119ha) 순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량을 지난해 기준 1만8627 t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간척지 내 수도작 금지를 통해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하락을 반박하고 있는 쌀값 안정화와 더불어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통한 농업 기술화 및 청년 농업인 유입 등 간척지의 다각적인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9월 25일 '2차 종합계획'으로 중점 추진할 5대 전략과 12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했다.

5대 전략은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기반 구축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촉진 ▲미래 융복합 농업 육성 견인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간척지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등이다.

이 같은 농식품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임대 계

약을 주관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간척지 내 수도작 재배에 대한 신규 임대계약 및 연장계약을 중단한다. 사전 계약된 기간까지는 간척지 내 수도작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 타작물로 전환하지 않으면 연장 계약이 불가능하다.

현재 간척지 임대는 법인당 5년으로, 3년 연장계약을 통해 최대 8년까지 임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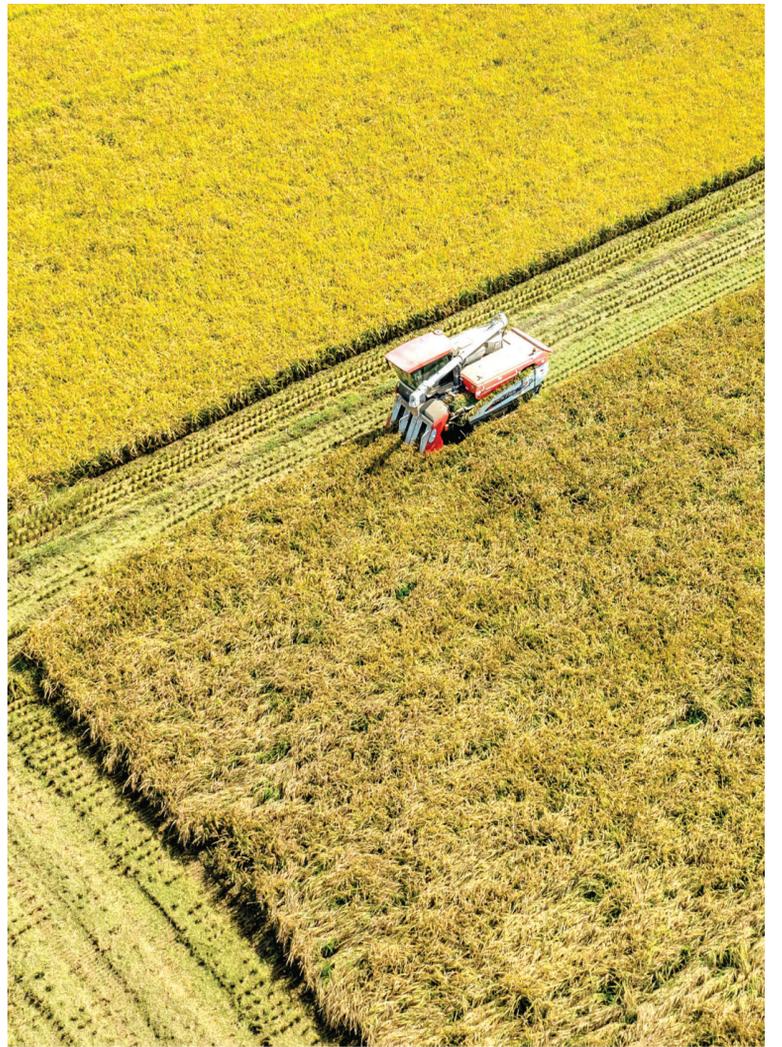
내년부터 간척지 임대를 통한 수도작을 계획하거나, 이미 수도작을 하고 있는 법인 가운데 연장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매년 3~4월 간척지 법인 계약을 맺는 것을 감안하면 5개월 내로 품종을 모두 전환해야 한다.

조급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지역 농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남 농민회 관계자는 "전국 농민회도 농식품부가 간척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간척지 내 수도작에 대한 세부지침을 전혀 듣는 바 없다"며 "당장 내년 간척지 임대 계약을 희망하거나, 연장하려는 법인·농민들이 작물을 변경하거나 간척지 임대를 포기하고 농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내년 3월 있을 법인 계약부터 수도작 전면 금지를 바로 시행할 경우 가루쌀 등 타작물 종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농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돼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등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시행 방안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3일 순천시 선학마을 인근 논에서 농민이 콤바인을 이용해 누렇게 익은 벼를 수확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고시한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임대 간척지 내 일반벼 재배면적은 0ha로 점진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13개 임대 간척지 내 수도작에 대한 신규·연장계약은 중단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쌍특검법 오늘 재표결...국회 안팎 긴장 고조

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與, 내부단속...野, 與 흔들기 집중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예정이어서 국회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일 여야는 4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를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당정 갈등 국면 등을 비판으로 국민의힘 내부 흔들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여사 의혹의 해법을 놓고 여권 내 이견이 노출된 만큼 이를 활용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 보겠다는 것이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여야 의원 전원 출석을 전제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듯 여당이 이번에도 특검법을 부결시킨다면 김 여사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제외하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한 점을 집중 부각했다.

정동영 의원은 KBS라디오 '전직시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을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여당에서) 쫓아내라'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당에 전달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여당을 향해 "국민이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여당 내에서 나오자 "국민이 다시 정권을 맡기겠다"고 자각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단순히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특검법 재의결 관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민

정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썼던 햇볕정책이 우리 당에도 필요하다"며 "공공책임으로는 웃음을 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누군가는 다음 정권을 잡고 싶을 텐데 그 첫 번째가 한 대표 아닌가"라며 "한 대표가 웃을 베풀게 하는 '햇볕정책' 전략을 지도부에서도 많이 고민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달라"고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정혜전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하고, 당 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반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대통령, 6~11일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이시바 日총리와 첫 회담 전망

대통령실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11일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각각 국민 방문해 무역과 투자 확대 등을 중심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라오스에서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 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아세안+3' (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도 이시바 총리의 양자 회담을 협의 중이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